청렴 韓 남구

부산남구신문

구 정 목 표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
Change More Namgu
■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
■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 조성
■ 구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실천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음력 9월 6일) 제261호

행복한 '가을 난장' 내년에 다시 만나요

제21회 오륙도평화축제 성황리 폐막

행복한 '가을 난장' 제21회 오륙도평화축제가 막을 내렸다. 축제는 지난 20~22일 사흘간 평화공원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외지관광객 등 2만 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축제는 남구가 세계 유일의 유엔평화문화특구인 점을 부각해 자유, 평화, 화합이라는 3개의 주제 아래 27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하지만 태풍 '란'의 북상으로 이기대 요트 체험은 안전을 위해 불발됐다.

하지만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평화음악회, 주민자치회 동아리경연대회 같은 프로그램들은 관객들의 압도적 호응을 받으며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관내 43개 기관 및 동아리가 참여한 제4회 부산남구평생학습박람회와 제10회 부산남구복지박람회도 인파로 북적였다. 축제와 연계해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출발해 백운포 체육공원까지 걷는 제32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에도 주민 2000여 명이 참가해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한편 축제에 맞춰 시작된 제8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열린다.

윤수일 '사랑의 콘서트'

남구청 광장서 무료공연… 장학기금 5000만원도 쾌척

27일(금) 오후 7시

국민가수 윤수일 씨와 ㈜대동레미안이 남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한다. 윤 씨는 기금 기탁 외에 27일(금) 오후 7시부터 남구청 구민광장에서 남구 주민을 위한 '윤수일 밴드 콘서트'도 가진다. 관람은 무료다. 콘서트에 앞서 종합건설회사인 ㈜대동레미안과 함께 남구장학회에 기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윤 씨의 남다른 남구 사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남구청에서 마련한 2014년 한여름밤의 음악회 초청가수로 무대에 올라 출연료 전액을 남구 지역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했다. 이런 인연으로 이듬해 서울 생활을 접고 대연동에 부울경 지역의 연예지망생을 발굴·양성하는 종합연예기획사 ㈜누리마루엔터테인먼트를 차리면서 남구에 둥지를 틀었다. 그 해 남구청 개청 4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축가도 불렀다.

70~80년대 드물게 작사와 작곡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로 대표곡인 '아파트'를 비롯해 지금까지 300곡이 넘는 노래를 만들었다.

세련된 무대 매너와 폭발적 가창력 등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으로 이번 콘서트에서 '터미널' 등 자신의 대표곡 10여 곡을 부른다.

윤 씨 외에 ㈜누리마루엔터테인먼트가 배출한 걸그룹 아모르, 장보윤, 위나, 지원이, 하지택 등 젊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607-4062

2017 남구 일자리박람회 '인산인해'

1500여명 몰려 역대 최다… 320명 일자리 얻어

2017 남구 일자리박람회가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와 구인업체를 발굴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1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 1500여 명의 구직 희망자가 몰렸다. 이는 1000명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50%나 증가한 수치다. 예상하지 못한 인파에 행사를 주관한 남구청은 급히 구내식당을 박람회장 보조 공간으로 사용했다. 이는 올해로 7회째 개최되는 남구 일자리박람회가 구직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그만큼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2017 남구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희망자들이 복도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GS건설 (주)대연자이, (주)한탑 등 역대 가장 많은 45개 업체가 구인활동에 나섰다. 박람회는 25개 업체가 행사장 내에 부스를 운영하며 담당자가 직접 현장 채용 및 면담을 가졌고 나머지 20개 업체는 입사서류를 모아 가져가는 간접참여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500여명이 면접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320명 정도가 채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역시 역대 박람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새 일자리를 구했다.

특별행사로는 BIFC 기술보증기금에서 참여, 남구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설명회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직희망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상담을 갖는 등 6개 기관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을 위해 취업 지원서비스 활동을 펼쳤다. 또 부대행사로 (주)에듀인잡컨설팅에서 증명사진 촬영, 취업타로, 지문적성검사 이벤트를 열었다. ☎607-4291~3

안중근의사교육문화재단 김수남 사무총장(오른쪽서 세번째)이 18일 남구청을 방문해 이종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남구청, 안중근 의사 공로상 받아

용호동 천주교묘역 안장된 여동생 묘소 정비 공로

이종철 남구청장 등 남구청 관계자들이 안중근 의사 하얼빈의거(1909년 10월 26일) 108주년을 앞두고 안중근의사교육문화재단과 안중근정신문화협회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안중근의사교육문화재단(총재 안창기)은 지난 16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안중근정신문화협회 창립총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해 국립현충원으로 안장되지 못하고 용호동 천주교공동묘역에 40년 넘게 방치된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안성녀 여사의 묘를 정비해 준 남구청에 고마움을 표하는 상패 수여식을 가졌다. 재단은 이종철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황경숙 주민지원과장과 김성한 구보 편집장에게 감사장을 각각 수여했다. 남구청은 지난해 8월 자체 예산을 들여 낡은 시멘트 비석을 오석으로 바꾸고 상석을 설치하는 등 여사의 묘소를 정비하고 참배객을 위해 묘소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안 여사의 친손자인 권혁우 재단 명예총재(광복회 부산남부연합지회장 겸임)는 "안 여사의 묘소를 돌봐준 남구청에 할아버지 안중근 의사를 대신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안 여사의 서훈 획득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향후 안중근의사재단 학교가 세워지면 여사의 유해를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서 58년간 빈민구제 하 안토니오 몬시뇰 선종

95세 일기로 타계… 1호 명예 남구구민

'우암동의 성자'로 불리던 독일인 신부 하 안토니오 몬시뇰(가톨릭 고위 성직자)이 지난 14일 95세 일기로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16일 남천성당에서 신자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고인은 양산 천주교공원묘원(하늘공원)에 안장됐다.

지난 16일 남천성당에서 신자 4000여 명의 기도 속에서 하 안토니오 몬시뇰의 장례미사가 거행됐다.

하 몬시뇰은 36세이던 1959년 10월 7일 우암동 동항성당의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해 일생을 남구에서 빈민구제와 교육사업에 헌신했다. 이런 공로로 1998년 남구 명예구민 1호, 2011년 명예 부산시민으로 선정됐다.

2005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공위 명예성직자를 뜻하는 '몬시뇰(monsignore)'에 임명됐고 2014년에는 국민추천 포상 수상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1979년 동항성당 주임신부에서 물러난 뒤 사제관에서 자신이 창설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한국 본부장을 맡으며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했다. 1974년 5월 19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첫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가진 이래 매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미사를 집전했고 2015년 7월 임진각 군사분계선 부근에 파티마 평화의 성당도 건립했다.

<하 안토니오 몬시뇰의 발자취 5면>

옛 남부서·여성회관 30층 빌딩 올린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지 선정

대연동 옛 남부경찰서와 부산여성회관이 30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로 공동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공공청사를 임대주택, 청사, 수익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에 이 두 건물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두 건물을 허물어 3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지어 여성회관과 청년임대주택 300호, 어린이집 같은 주민편의시설과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새로 건립될 랜드마크 건물은 정부의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을 받고 향후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면 장기 분납, 건폐율·용적률 상한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 간 : 2017. 10. 30.(월)~11. 3.(금)/5일 간
■주 관 :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훈련유형 : 토론/실행기반훈련, 국민참여형훈련 등
■참여기관 : 남구,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한전, 도시가스, 군부대 등 우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주민
■일자별 주요 훈련
○10. 30.(월)-직원비상소집훈련(안전도시국)
-지진대응 토론기반훈련
○10. 31.(화)-지진대응 현장(실행)기반 훈련(용소초등학교)
○11. 1.(수)-풍수해 대비 매뉴얼 숙달 훈련
○11. 2.(목)-안전문화운동 확산 거리 캠페인
○11. 3.(금)-불시 메시지 처리훈련

1951년 남구 사진 속의 비밀 〈6면〉
비밀의 숲길 황금길 트레킹 〈7면〉
제22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들 〈8면〉
남구의 음유시인 임하수 〈11면〉